

# 실패에 도전하는 희망의 증거

**TURBOTEK**

- 터보테크 임직원이 퇴직금 털어 회사에 기부



**퇴** 직금도 이전 벤처퇴직금란 말이 생길지 모르겠다. 벤처기업 터보테크의 임직원 벤처인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회사에 기부했다. 벤처협회에서 기부운동으로 시작한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의 1호 기업답게 임직원들은 기부문화가 척박한 우리나라에, 그것도 벤처업계에 새로운 기부문화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터보테크 퇴직자들은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물러나는 데 회사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보다는 자신과 동료, 회사와 소액주주들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으로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모아 회사에 2,000만 원을 기부했다. 종교단체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많이 있는 일이지만 퇴직한 직원이 퇴직금으로 회사에 기부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벤처기업 터보테크는 우리나라 기술독립군 정신으로 카이스트 박사과정 4명이 1988년 창업한 회사로, 2005년 분식회계의 아픔을 겪었다. 대표이사가 눈물로 회사만을 살려야 한다며 모든 재산을 회사에 내 놓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 퇴직하는 임직원들은 자신이 다녔던 벤처기업에서 모든 아픔을 책임지는 벤처CEO의 책임감을 봤다. 대표의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하는 희망의 증거를 만들고 싶다"는 말에 희망도 보았다.

또한, 회사가 어려울 때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각오로 뚝뚝 땀 흘린 직원들의 일체된 모습에 감동을 느꼈다고 한다. 여기에 지역사회음악단체(분당만들린, 아주여성합창단, 조방원(태진아 친동생) 씨)도 회사 내부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열린 음악회의 음악연주를 통해 위로해주었다. 소액주주들도 직원들의 의지에 감동을 받아 직원들 전원에게 머플러를 선물하고 인근 웨딩홀을 빌려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이러한 흐뭇한 모습에 퇴직 직원들은 벤처가 살아 있음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벤처기업에서 일하면서 느낀 감동을 회사를 떠나면서 회사에 남아있는 벤처화랑도인 동료들에게 작게나마 다시 돌려주고 싶다고 했다. 회사를 사랑하고, 벤처를 사랑한 임직원들은 벤처업계가 시베리아 같이 얼어붙은 상황이라도 기죽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갖자는 말과 함께 자신의 땀이 묻은 퇴직금을 회사에 전달했다.

## 함께 키우는 벤처의 미래

지금 우리는 FTA로 세계로 향한 문을 활짝 열고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그들은 벤처가 이시대의 민족의 희망임을 밝히는 마음으로 선교헌금 내듯이 기술독립군인 동료들에게 독립군 군자금 같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이에 새로운 역사의 주역인 젊은이들이 벤처정신을 배워 세계에 적극 도전하고, 실패에 도망치지 않고 정직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배웠으면 한다. 벤처가 두려움에 떨면 벤처가 아니지 않느냐? 남이 예상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벤처 아닌가?!

숨 쉬는 감동과 따뜻한 격려가 있는 벤처문화.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패기와 열정,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발한 시도를 멈추지 말자.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져 보자는 위대한 사명감을 갖자. 시행착오와 실패의 두려움 앞에 벤처의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 희망 속의 도전이 곧 벤처다. 결국 벤처퇴직금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벤처는 우리가 지켜야 할 시대정신이며 역사를 새로 쓰는 사명감일 것이다.

